

코로나·불안·AI...시대 상황 반영

2022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 완료
함정임·이병률·이미레 심사위원 참여
시1435편·소설152편 등 1723편 응모
디지털 데이터·고립된 자아 등 다뤄

문학은 시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문학은 당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예술장르라는 의미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신춘문예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다.

2022 광주일보신춘문예 심사가 완료됐다. 이번 심사는 16일 본사 편집국 9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함정임 소설가, 이병률 시인, 이미레 동화작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 응모작은 시 1435편, 소설 152편, 동화 136편 등 모두 1723편이 투고돼 예년 수준의 응모 현황을 보였다.

언급한 대로 올해 신춘문예에는 코로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불안과 거리두기, 고립된 자아, 디지털 데이터 서사화, 환상적인 분위기 등을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한편으로 미래를 향한 긍정, 글 쓰기 자체에 대한 위안 등은 여전히 문학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투고자의 면면도 다양했다. 특히 올해는 장년, 노년층의 작품이 많이 응모됐다. 직장을 은퇴하거나 생업에서 물러난 이들이 뒤늦게 문학에 입문해 창작의 열정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투고자들의 거주지도 광주전남 외에도 전국에 분포할 만큼 다양했다. 서울과 수도권, 영남, 충청 등 각지에서 신춘문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소설 부문은 시대 상황과 연관된 소재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가 서서히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기제로 작



2022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가 16일 본사 편집국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병률 시인, 이미레 동화작가, 함정임 소설가.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현 시대 트렌드와 결부된 SNS, AI와 관련된 직종을 다룬 소설도 있었다.

함정임 소설가는 "코로나 관련 작품 외에도 레즈비언, 동성애, 디지털 데이터 서사와 소양하는 젊은층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많았다"며 "특히 감각 상실로 시각과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인물을 그린 작품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 부문은 회화적인 시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를 구조화하는 데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는 평이 뒤따랐다.

본심을 맡은 이병률 시인은 "작년에 비해 시 부문은 코로나 관련 작품이 줄었는데, 아마도 익숙한 환경을 거친 탓인 것 같다"며 "그럼에도 시를 쓰면서 위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강대선 시인은 "많은 작품에서 삶과 죽음이 여전히 주요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다소 내면의 심리를 기술한 시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 내일을 향한 열정과 긍정을 담은 작품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화는 환상적으로 접근한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접근방식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이미레 동화작가는 "반려동물, 곤충 등 작품의 소재와 투고 연령층이 다양해진 점은 고무적이지만 문학성을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았다"며 "구조의 긴장감을 살리면서 동심을 아우르는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문 당선작은 2022년 1월 3일자 광주일보 신년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손글씨 글꼴' 무료로 사용하세요

ACC 어린이 손글씨 공모전... '가을 담은채' 등 3종

'가을담은채', '어린이 하늘맑은채', '어린이 마음고운채' 등 ACC가 개발한 글꼴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은 어린이 손글씨를 ACC 글꼴로 개발해 누리집 등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글꼴은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ACC 어린이 손글씨 공모전'에 입상한 3명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ACC 어린이 가을담은채'는 고딕체를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로 정사각에 가까운 딱 찬 모양이 특징이다. 선으로 한자체 뿐 아니라 획과 약간의 기울기가 눈에 띄는 'ACC 어린이 하늘맑은채'는 짙고 눌러 쓴 느낌을 살렸고, 부드러운 자음과 모음의 선이 특징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곁어나가면

인 'ACC 어린이 마음고운채'는 탁월한 리듬감이 일품이다. 이번 글꼴 3종은 원도우용(TTF)과 매킨토시용(OTF)으로 한글 2350자, 영문 및 기호 94자가 지원된다.

한편 ACC는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글오피스, MS오피스 등에도 안심글꼴로 배포, 고객 편의성 높일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춤, 時나브로'

18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은 18일 오후 5시 진양당에서 토요상설 프로그램으로 특별공연 '춤, 時나브로'를 선보인다.<사진>

1부에서는 궁중무 복식을 갖춰 입고 색한삼을 훌뿌리는 화관무인 '어람풍경'을 시작으로, 이관용 구성의 철야야금 가락을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한 선율 위에 춤을 엮은 산조춤 '휘술', 대화의 고결한 아

름다움과 향기를 시각화한 '매향무'를 선보인다.

2부에서는 '백수광부의 처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공후를 타며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노래로 부른 후 죽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도하가'를 새롭게 안무한 작품인 '비가(悲歌)'를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무대는 망자의 한을 달래 위로하는 진도씻김굿 중 '지전춤'이 장식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끝없음에 관하여' '피부를 판 남자'

로이 안데르손 감독 작품
광주극장... 베니스영화제 수상작
18일·24일 '닥터 지바고' 상영도



'끝없음에 관하여'

세계 유수영화제에서 수상한 감독 작품을 만난다.

16일 광주극장에서 개봉한 '끝없음에 관하여'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을 만화경처럼 배치한 로이 안데르손 감독의 포에틱 시네마로 제76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작이다.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석권한 스웨덴의 거장 로이 안데르손 감독의 신작으로 첫 정식 국내 개봉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카우타르 벤 하니야 감독의 '피부를 판 남자'는 악마 같은 예술가에게 자신의 피부를 팔아 자유, 돈, 명예를

얻지만 '살아있는 예술품'으로 평생 전시되는 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은 아트 스릴러다. 현대 하이엔드 예술계의 화려함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 불평등, 문제의식 등을 날카로운 통찰과 유려한 연출력으로 담아내 호평을 받았고 제77회 베니스영화제 오리존티 최우수 연기상과 에디포 레상을 수상했다.

한편 파스테르나크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데이비드 린 감독의 명작 '닥터 지바고'는 18일(오후 3시20분), 24일(오후 7시) 두 차례 영화팬들을 만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영남 속의 호남, 호남 속의 영남'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경북대와 17일 학술대회

호남과 영남의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된 상호교류의 실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영원)이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원장 이영호)과 17일 온라인을 이용해 연합학술대회를 가진다.

'영남 속의 호남, 호남 속의 영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두 지역 역사 속에 깃든 흔적을 짚어, 지역문화의 보편성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부에서는 김종구 교수(경북대)가 함양 출신 의병장인 정경운의 '고대일록(孤臺

日錄)'을 살펴 영남인의 호남인식을, 최유준 교수(전남대)가 작곡가 윤이상을 통해 영호남의 공명을, 그리고 김봉국 교수(전남대)가 5월 운동을 토대로 영호남의 횡단성을 탐색한다.

2부에서는 추계협 교수(계명대)가 퇴계 이항과 산천재 이항형의 상호교류를 짚어 보고, 김재용 교수(경북대)가 춘향전 필사의 전통을 통해 영호남 지역의 소통을, 김기성 교수(전남대)가 지구화 시대 지역학의 성찰과 영호남의 횡단지역성을 되짚어 본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동행재활요양병원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별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환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720-2000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일 제190816-중-388919